

News

밀물처럼 들어왔던 정기 예·적금, 썰물처럼 빠져

아시아경제

작년 연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가 5% 가까이 올랐을 때 보였던 쏠림현상이 사라짐
5대 은행의 1년짜리 주력 정기예금상품 금리는 최고우대금리를 적용해도 3%대(27일 기준)에 그침

고금리에 서민금융 악화...대부업 13곳 영업중단·햇살론 부실 ↑

이데일리

조달금리 올랐지만, 최고금리 20%에 막혀 대출 어려워
햇살론 대위변제율도 16%돌파...2년새 3배 가까이 증가

은행앱서 호텔 예약...금산분리 개선안 나온다

서울경제

다음달 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주목,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 추진
무분별한 진출 따른 건전성 문제는 위험 총량 한도관리 등으로 해결

코로나 풀리자 해외로...작년 해외서 붉은 카드비 52% 급증

머니투데이

지난해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전년 대비 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입국 관련 규제 완화로 해외여행 문턱이 낮아지자 미웠던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

DB손보發 '車사고 변호사비 특약' 열풍에 우려 시선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3개월 배타적사용권 종료, 경쟁사들 더 강한 보장상품 준비
과다청구·무작위 선임 등 부작용, '우리만 뒤처질라' 떠밀려 출시도

중소보험사 "단기차입한도 완화 연말까지 연장해달라"

머니투데이

중소보험사, 지난해 11월 자금 확충 방안 다양화를 위해 한도를 푼 단기차입 관련 방안을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 건의
금융위, 유동성 점검을 통해 건의사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

‘채권개미’ 이달 5대 증권사에서만 5조원 샀다

디지털타임스

채권과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이는 '역(逆) 머니부브'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지난 26일까지 5대 증권사의 개인 상대 리테일 채권 판매액 5조 123억원으로 집계

한국투자저축은행 유동성 '빨간불'...규제 마지노선 '붕괴'

데일리안

한국투자저축은행 유동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정한 규제 마지노선 아래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남
모회사 자금 수혈에 나서긴 했지만, 증권업계 역시 유동성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탓에 계열사를 향한 조력 한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